통일부 "한반도 문제, 미·중 협력 분야"

"대북 기조 일관 유지, 국제사회 소통 강화"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인도 협력 등 언급…올림픽 등 계기 기대도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상반기 계기 마련 의지를 내보였다. 인도 지원을 시작으로 민생 협력으로 이어지는 관계 진전 추진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에 대해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는 협력 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관된 대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세를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상반기 중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코로나 방역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에서 시작해 식량 및 비료 등 민생협력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이는 상반기 중 남북관계 개선 계기 마련,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별도로 인도적 접근을 이어간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미·중 대립 국면 속에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당국자는 "미·중 간에도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는 공감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공동 대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완전히 기대를 버리지는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불참 사유가 방역 관련 이유라는 면에서 주변 동향 변화 등에 따른 가변성을 내다보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 강습회, 당 세포비서 대회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내부정비, 보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어 "최근 그간 대외 관망 기조에서 벗어나 대남, 대미 입장 표출을 시작하고 중국과는 정상 간 구두 친서를 교환, 발표하는 등 전략적 의사소통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서동용,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섬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고,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의료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해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의 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중증·응급환자는 타 지역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라남도와 서동용 의원은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특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내용이 의료혁신협의체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공감했다.

서동용 의원은 특히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전남 지역에 여실히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는 여영국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권성동 "6월 전당대회 예상…김종인 연장 의견 다수 아냐"

"윤석열, 단일화 움직임 8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향후 국민의힘의 일정에 대해 "6월 중하순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 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잔류를 원하는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 중에 그동안 성과가 있었고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데에 역할을 하셨으니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대다수 의견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합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향후 대선 출마를 위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아마 한 7~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순천지역 코로나 확산에 시·도협력으로 대책 마련 나서

김영록 전남지사 순천 방문 건의…긴급 합동상황점검 성사

순천 지역에 코로나19확진 환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순천시, 국회의원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7일 오전 긴급히 순천을 방문한 김영록 도지사, 허석 시장 등과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보건소에서 긴급상황점검을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소 의원은 7일 아침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과 6일에 이어 이틀 연속 전화로 순천의 코로나19확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소 의원은 "지금 순천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남도와 순천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강 국장에게 "순천을 다시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정시키겠다"며"코로나19는 방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줘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청에서도 협조하는 등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위로차원으로 마스크 3만장을 가져오기도 했다.

소 의원은 "지사님께서 달려와 주시니 시민께 큰 힘이 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께도 큰 힘이 된다"며 "확진자를 정확히 찾아내고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확진자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이며 총력을 다해서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자가격리 원칙을 지켜줄 것, 마스크 착용 외에 악수나 신체 접촉을 줄여주고 손소독제 사용 및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는 몇 차례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바 있다. 시민들의 협력과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호소드리며, 국회와, 순천시,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19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가 4차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만큼 순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 중단을 결단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도의원 후보는 대면선거운동을 일체 중단하고 미리 녹음해둔 방역수칙준수 호소 메시지를 유세차에서 재생하는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했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